



기독교사회복지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EXPO 2010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섬김과 나눔의 행복축제

www.c-expo.org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

사회복지영역별 세미나

Section IX_ 지역복지분과 세미나

| 일시 | 2010년 10월 15일 금요일
오전 10:00 ~ 오후 1:00

| 장소 | 여의도순복음교회 베들레헴성전(대성전 제1출입구)

|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2010 조직위원회 |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섬김과 나눔의 행복축제

www.c-expo.org

기독교사회복지EXPO 2010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사회복지영역별 세미나

지역복지분과

인/사/말



김삼환 목사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 대회장, 명성교회 당회장)

한국교회는 그동안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며 놀라운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았는지, 마치 한국 교회의 성취가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 낸 성과인양 자만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은혜 앞에서 겸손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풍성하게 받은 축복과 은혜를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우리 자신을 위한 소비는 줄이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나눔은 더 크게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의 진정한 희망이 되기 위하여 교회는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며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시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부흥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민족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 아픔을 끌어안으며 함께 울고 함께 웃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참된 생명이 있고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과 구원의 방주임을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은 한국교회가 주님의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다양한 행사와 자료를 제공하고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사랑과 수고와 눈물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바라오며, 모든 과정에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환/영/사



이 영 훈 목사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 조직위원장,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국의 역사속에서 지난 125여년 한국교회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는 일에 앞장 서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여 한국교회가 실천해 온 다양한 섬김의 모습은 한국사회발전 에 크게 기여하였고, 많은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은 현재 한국 사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교회와 기독교 사회복지단체가 한 곳에 모여 지금까지 실천해 온 그 귀한 사역을 한국교회가 사회 앞에 알리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엑스포가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섬김의 사역을 다하고 있는 교회와 단체에는 따뜻한 격려를, 새로운 복지사역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와 단체에는 힘찬 용기를,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을 알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이 엑스포를 통해 한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복지사역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게 됨으로 기도와 참여, 후원에 최선을 다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기조강연 	9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기독교사회복지의 활동과 과제” _전광현 교수(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발 표 1 	30
“지역사회복지관과 교회와의 협력체계를 통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실천 사례” 이상희 부장(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발 표 2 	37
“녹번종합사회복지관”	
종합토론	

기독교사회복지EXPO 2010

사회복지영역별 세미나

-지역복지분과-

1. 일 시 : 2010. 10. 15(금) 오전 10:00 ~ 오후 1:00
2. 장 소 : 여의도순복음교회 베들레헴성전
3. 등 록 비 : 무료
4. 행사안내 :
 - 1) 전화 및 팩스(Tel. 02-747-1225 학술팀 / Fax. 02-764-1225)
 - 2) E-mail(expo2010_head@hotmail.com)
5. 행사일정

시 간	순 서	내 용
09:45 ~10:00	경배와 찬양	여의도순복음교회 청년국 찬양팀
10:00 ~10:30	개회예배	인도_ 신용규 목사(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 기도_ 최길수 장로(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장) 설교_ 한태수 목사(은평교회) 축도_ 설교자
좌장 : 최소연 교수(남서울대학교/사회복지학)		
10:30 ~11:20	기조강연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기독교사회복지의 활동과 과제” _ 전광현 교수(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1:20 ~11:50	사례발표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11:50 ~12:20	사례발표2	녹번종합사회복지관
12:20 ~13:00	종합토론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섬김과 나눔의 행복축제

www.c-expo.org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기독교사회복지의 활동과 과제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 광 현

I. 들어가는 말

기독교는 사회복지의 어머니라고 말한 라인 홀트 니버의 말처럼 기독교는 그 활동이후 신앙의 원점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제 속에서 그 존재의미를 확인하며 활동을 계속하여 왔던 것이다. 물론 여러 가지 정황과 환경 속에서 변질과 변화의 반복의 역사 속에 있지만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일 선상에 있다는 개념 사상은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하는 날 까지는 버릴 수 없는 명제인 것이다.

한편 이러한 명제, 진리 속에 있는 기독교의 이웃 사랑에 관한 활동을 점검하고, 이것이 우리나라 정황 가운데 어떤 인식과 활동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평가 어떠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이었는가를 점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 온 이래 놀라울 정도의 양적 팽창과 활동을 하였다. 즉 인구의 약 25%가 기독교인이 되었으며, 아울러 새로운 문화를 소개하고, 생활 개선을 주도하여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끼쳐 왔다. 특히 새로운 교육, 서구식 병원, 절제운동, 여성해방운동, 사회사업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여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한국 기독교는 사회를 위한 사회적 활동 즉 사회봉사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것들을 좀더 점검하여 21세기를 맞이하는 기독교의 올바른 방향과 아울러 민간사회복지를 활성화하는 본래의 기능을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보고는 기독교사회복지 전반을 검토하고 그 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기독교사회복지의 본질에서 기독교가 실천하고 있는 사회봉사의 본질을 살펴보고, 또 그 활동의 형태적인 틀과 나름의 독특한 의의를 찾아내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점검이후 한국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을 역사적인 맥락과 실제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살피고, 타종교와의 비교를 통해 그 현황과

흐름을 이해하려고 하였다. 이 부분에서 한국 기독교사회봉사 활동의 대사회적인 역할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이제까지의 원론적인 부분의 점검과 역사적 현황과 실제적인 조사를 근거에 두고 그 과제를 제안하였다.

II. 기독교사회복지의 본질과 특징

1 기독교사회복지의 본질

기독교사회복지의 본질을 밝히려면 먼저 일반 사회봉사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이 기독교와 어떠한 맥락에 있으며, 그 결과 기독교사회복지의 본질은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말해야 할 것이다. 본 장에서 이러한 논리적 규정에 의해 기독교사회복지의 본질을 추적해 본다.

먼저 사회봉사의 성격을 밝혀보자. 사회봉사에 대한 일반적인 성격은 사회화되어 있다. 즉 자발적인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활동(운동)을 말한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로부터 국제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고독이나 질병, 장애 등에 의한 곤란이나 부조리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떠한 수단을 강구하며, 또 그들과 더불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말한다.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위기에 관심을 갖으며, 이를 주민에게 알리며, 때로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사람들을 조직하며, 운동화하고, 필요하다면 재산까지 투자하여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봉사는 막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에 이 활동을 가능케 하는 정신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회봉사의 활동의 기본이 되는 정신을 우리는 볼렌타리즘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Voluntarism 또는 Voluntaryism라고 쓰고 있다. 전자는 주로 철학이나 신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보통 “主義主意”로 번역되고 있다. 이 말이 풍기는 뉘앙스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이나 지성보다는 자발적인 자유의지나 자유스런 정신을 중시하는 입장’을 나타내는 말로 볼 수 있다. 한편 후자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최초로 나온 것으로서, 즉 기독교가 갖고 있는 독자의 신앙이나 교리가 국가(권력)로부터 간섭되거나 통제되지 않는 입장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곧 자유스런 기독교, 자유스런 모임으로서의 기독교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봉사의 정신으로부터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생각들이 나타나게 된다. 즉 개인이 갖고 있는 신앙이나 생각, 행동들이 국가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자립되어 있다는 관념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봉사는 국가나 행정 즉 권력에 대하여 협력을 하지만 국가행정권력이나 특정의 세력이 반인권적, 반복지적이면 이것에 대하여 대항하여 간다는 정신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大阪ボランティア協會, 1987).

여하튼 볼렌터리즘은 그 정신적 기반을 “자유의지”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국가나 제도나 습관을 뛰어 넘는 자유스런 정신 바로 그것인 것이다. 이러한 자유성은 공동체의 곤란이나 위기를 보게 될 때, 평소 제도나 조직에 속하여 있으면서 비판, 저항, 창조, 연대, 제언 등을 기대할 수 없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활동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결국 볼렌터리즘은 곤란에 처하여 있는 이웃의 존재에 대하여 재산이나 생명 등을 희생하여도 후회하지 않는 가치를 나타내어, 너(그대)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에너지의 원동력이 되게 한다. 이러한 점이 사회봉사의 근본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봉사의 근본성격은 기독교에서도 발견되는 것으로 기독교의 신앙으로 인해 그 점이 강화되고 행동화하도록 요구받는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봉사에 대해 기독교의 맥락은 적극적이고 자발적임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기독교신앙이 사회봉사를 강화하고 행동화하도록 하는가? 성서적 신앙의 내용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은총)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증거 및 확신으로 이웃을 사랑하여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생활행동의 원동력이 된다. 그리고 현실 생활 가운데 계속적으로 절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점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로마서 8장 35절). 생활 속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인과 이를 저해하는 것과의 다툼이 있게 하며, 기독교 진수를 구하는 신앙에 있어서는 지극히 자연적인 삶의 자세가 되게 만든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이며, 현재 보이고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다”(요한 일서 4장 20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은 방관자적일 수 없다. 이웃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만든다. 이웃을 자신의 입장과 동일시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에게 이웃은

지금 자기 자신과 같이 사회·경제·문화·기구 가운데 의식주 곤란, 보장이 부족한 사회생활, 사도 바울이 앞에서 지적한 대로 환난, 곤란, 박해, 위기로부터 탈출을 원하고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그 결과 크리스천은 위기, 곤란 가운데 빠져있는 이웃을 돕는 것이 자신은 물론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나쁜 힘으로부터 분리하고자 하는 것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크리스천들은 성서의 입각한 종말론적인 역사관에 입각하여, 크리스천들이 전개하여야 하는 모든 사회적 행위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인간의 도덕적으로 이루어지는 왕국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것을 고백한다. 이러한 역사관 속에서의 성서적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와(and)의 관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equal), 동일성 관계로 보는 것이다. 즉 크리스천은 이웃의 존재를 크리스천이 만나야 하는 “하나님의 가면”으로 경외하고, 시간적 너(그대)와의 관계 가운데, 이를 초월하는 영원한 너(그대)와의 관계를 만드는 것인 것이다. 이것은 단지 이상을 생각하며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실존에서의 상태를 나타내게 된다. 그리고 이때 사랑은 굶주린 자에게는 먹이며, 넘어진 자에게는 일으키는 것들로 표현되게 된다. 필히 “무언가를 위함”과 같은 구체적인 행위를 보이게 하는 것을 성서에서는 사랑이라고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앙의 본질이 기독교사회복지의 본질을 드러내게 한다. 그리고 일반 사회봉사의 성격을 넘는 특성의 본질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 크리스천에 있어서의 사회봉사활동은 사용되는 자로서의 위치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있는 제물로 인정된다는 점일 것이다. “나와 너”와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너를 위하는 것을 위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최선의 능력을 다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용된다”라는 것이 크리스천의 사회봉사활동이고,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이러한 활동이 그(기독교사회복지) 본질에 이르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궁극적으로 크리스천은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실천은 단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사이에 하나님이 존재하며, 하나님에 의해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다. 크리스천 앞에 존재하는 이웃은 단지 무력해 보이는 영아일 찌라도, 또 어떠한 중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혹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귀한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은 크리스천에 있어서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응답인 것이며, 신앙의 열매인 것이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 이에 의하여 자 유함을, 가치를 부여받은 인간의 사회적 증거인 것이다. 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나 그를 둘러싼 사회문제의

해결을 과제로 하는 사회적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편적인 사랑의 원리는 현대 사회에서의 사회봉사활동의 본질하고도 차원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사랑은 기독교적 정의와 함께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을 움직이는 불런터리즘이기도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봉사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신하여 하는 사회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알다시피 사회봉사의 성격에는 자발성과 복지성, 무급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봉사활동의 정신적 기반은 불런터리즘 것이며, 이는 대상자에 대하여 자기의 재산이나 생명, 행위를 희생하여도 후회하지 않는 가치를 갖고 있으며, 그들을 동일시하는 힘인 것이다. 이는 기독교에 있어서의 아가페적인 사랑이며 이웃사랑인 것이다. 이것은 동시에 국가나 제도, 습관을 뛰어 넘을 수 있는 행위이며, 또 제도나 조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창조성과 개척성, 연대성, 비판성, 제언성 및 저항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정신인 것이다.

2. 기독교사회복지의 특징

일반사회봉사와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은 그 개념에 있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논의했듯이 일반자원봉사의 기반이 자발성과 무보수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기독교의 경우는 이와 더불어 봉사 자체가 말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명령이요 사명에 대한 순종이란 점 그리고 이에 따른 영적인 축복 혹은 상급이 있다는 점이 그 개념상 다르다. 이런 점에서 의무감과 강제성이 포함되어 있다(현외성, 1996).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을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즉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이란 기독교인이나 기독교 등 기독교 단체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자선적, 교육적 또는 다른 가치 있는 활동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이나 재능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기독교적 실천활동이나 정책을 말한다(김기원, 1998)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이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웃 형제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통제하며 개선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헌신적으로 실행하는 기독교인들의 이웃사랑 실천 활동이다(김기원, 489)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이것의 신학적 기초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사랑의 표현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그 사랑의 극치는 인간을 사랑하사 그 독생자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모습으로의 출현과 인간을 위한 죽으심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으로 더욱 실체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일반 사회봉사와 기독교사회복지활동과의 공통성과 특이성은 무엇인가(현외성, 1996). 먼저 공통점은 양자가 사회봉사라는 점에서, 사회봉사 개념이 지니고 있는 하위구성

요소들을 갖고 있으며, 또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이 전개되는 방법이나 기술 혹은 대상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일반 사회봉사는 역사적인 산물이다. 즉 오래 전부터 자급자족하고 공동생활을 영위하여 온 사회.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여, 혈통을 중심으로 한 상호부조의 성격을 지녔다. 한편 종교적 신앙심에 의거하여 발달하여온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은 그 상황이 조금은 다른 것이다.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가.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은 사업의 실천 주체가 기독교, 신자, 교단 등에 의하여 실시되기 때문에 성경과 교리에 의하여 실천된다는 점에 일반 사회봉사와는 다르다. 즉 일반 사회봉사는 종교 교리와는 다르게 인본주의적 가치와 방법에 의하여 수행된다.

나.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은 근본적으로 사회봉사 대상자의 욕구 충족이라는 일반 사회봉사의 목표를 넘어서 궁극적인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일반 사회봉사가 사람들의 물질적, 정신적, 심리적 생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은 영적인 구원과 구원받은 데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다.

다. 일반 사회봉사의 관심은 제공되는 사회봉사 대상자의 욕구 충족에 있다면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의 중요한 관심의 하나는 사회봉사를 실행하는 교인이나 기독교, 교단 등의 사명감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에 있다는 것이다. 마땅히 기독교인이나 기독교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전도와 사회봉사를 하여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으며, 또 이 일을 행한 자에게 주는 하늘의 상급과 사회봉사를 통하여 얻는 온전한 믿음과 인격을 위해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은 실시되는 것이다.

3. 기독교사회복지의 사회적 책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기독교인들의 삶에 대한 두 가지 커다란 강령이다. 이 성경구절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 사랑 못지않게 인간에 대한 형제적 사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요한1서 4:20)는 말씀과 관련이 된다. 즉 인간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은 크게 사회봉사(social service)와 사회행동(social action)으로 대별된다. 사회봉사는 구제와 노력봉사를 의미하며, 사회행동이란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사회제도의 변화를 추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만약 개인의 문제가 불합리한 사회 환경에서 일어난다면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그 환경에 직접 개입하여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개인적 생활만 경건하게 살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정의와 공평이 실현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비판적 삶을 살아야 하며, 교회는 개혁적인 사회활동을 보다 많이 담당해야 한다.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서의 ‘아가페’란 구체적으로 ‘작은 집단의 사람들을 위한 개방성’이라고 한 하인리히 오토(Heinrich Ott)의 말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김광식 역, 1985), 교회는 개인의 윤리문제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그러한 문제를 야기한 보다 커다란 사회적 조건을 규명하고 변화시키는 데에는 그다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교회가 개인적 관심의 요소들을 모아 박애주의에 입각한 조직적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기독교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함에 있어서 갖는 내재적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회는 적극적으로 ‘종의 자세(servanthood)’를 취하여야 한다.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에 한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인간의 가치와 권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인간이 처해 있어야 할 상태의 신앙적 기준을 제시하고 그 이상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다른 조직이 따라올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을 쌓아왔다. 현대에 들어와서 기독교가 1차적인 사회복지 책임을 국가에 이양하였다 하더라도, 기독교는 국가가 사회복지를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는 국가가 실시하는 복지활동을 감시, 비판하며 국가가 실시하지 못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선도적인 또는 보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 교회는 교회로서 본질적인 사명인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을 영속적으로 지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 현대 사회문제의 복합성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사회복지 는 보다 전문적인 사회사업 개입방법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기독교사회복지는 구제활동은 물론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직접 서비스, 즉 교육, 상담, 위기개입, 가족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크리스천들에게 서비스 제공방법에 대한 교육이나 사회복지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위한 구조개발과 프로그램 평가, 나아가 개인, 집단 및 지역사회의 복지를 위한 옹호활동도 할 수 있다.

III.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의 형태와 방법

1.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의 역할

기독교사회복지의 기독교적 역할은 일반적인 사회봉사활동의 형태 속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사회적 문제에 대응한 사회복지적 사회봉사활동은 행정이나 전문종사자, 당사자활동과 연계, 협조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즉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는 담당자로서, 또 사회적 소외 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자로서, 그리고 사회 자원을 만들어 가는 사회운동의 담당자로서의 역할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가), 커뮤니티 만들기를 위한 역할 으로서는 어린이회, 레크레이션활동, 스포츠, 문화활동 등과 장애인이나 노인들과 함께 하는 활동, 가정문고활동 등등 지역사회 여러 계급이나 계층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공동체 성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의미한다.

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이다. 커뮤니티 케어의 하나로서 일익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와신 노인, 치매노인, 여러 가지 형태의 장애인들을 위한 재가복지 사업과 아울러 복지시설을 통한 시설복지를 수행하는 것이다.

다), 사회자원의 불 충족, 불충분, 불정비나 제도의 개선, 새로운 제도의 창설을 요구하기도 하며, 스스로 개척하여 제도화를 촉구하기도 하며, 당사자 운동, 소송운동, 청원운동에의 협력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위와 같은 일반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염두에 두고 이를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그 활동을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가), 공적제공체제를 보완하는 활동으로서, 다른 민간조직과 함께 기독교는 지역의 사회활동의 공적지원체제를 지원하는 파트너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주민과 공적 시스템과는 겹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독교나 크리스천은 그것을 찾아 그 공백을 메워 주는 것이다. 즉 다음에 언급할 역할인 주민과 행정과의 가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나), 조직 간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활동으로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나 회원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가는 것이다.

다), 기독교 내외 기독교간의 활동에 관여하는 것으로서, 우선 단독 기독교에서의 활동이다. 각 기독교에는 여러 가지 집단이 있다. 여러 가지 기독교 내의 집단이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서로 조정하며 기독교의 사회봉사활동을 추진하여 가는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간의 활동으로서, 기독교는 지역사회 내에서 소속된 교단의 특성에 따라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의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협력을 하는 것이다.

2.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의 의의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은 일반 사회봉사활동과 공통점과 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 의의도 중복되는 부분과 독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독특한 부분은 기독교라는 맥락이 주는 점일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적이라는 맥락은 기독교입장에서 자신들이 가지게 되는 의의와 사회적으로 주는 의의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오해가 없어야 하겠다.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이 사회를 향한 의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타나는 양식에서 중복되고 가려내기 힘든 부분으로 인해 그 의의의 독특성을 일반 사회봉사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지 그 활동자체가 일반 사회봉사가 주는 의의와 무관하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일반사회봉사의 의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독교라는 맥락이 주는 의의를 포함한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일반 사회봉사에서의 의의인데 기독교사회복지활동도 이러한 의의를 포함하고 있다. 즉 사회봉사활동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大阪ボランティア協會, 1987).

가), 커뮤니티 부재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에서 활동을 통하여 사람들과의 연대와 공동성을 촉구하는 것이며,

나), 지방자치나 제도에 활력을 심어 넣어 주는 사회운동의 역할이다. 비판이나 제언, 참획을 통하여 행정의 관료화를 방지하는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는 것이며,

다), 가교적인 역할로서 관리화 사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소외되고 있는, 되어 가는 노인이나 장애인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주체성을 찾아주며, 또 복지시설과 지역사회와 중간적 입장에서 교류를 갖게 하는 것이다.

라), 개척과 창조하는 역할이다. 새롭게 발생하는 복지문제, 지역사회문제를 찾아내어 행정이 어쩔 수없이 하는 것을 스스로 체험, 실험, 개척하는 역할이다.

마), 특히 장애인, 노인, 아동들의 발달적 과제에 따라 대응하는 것으로서 친구와 같은 분위기에서 대화, 놀이, 캠프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전문직과는 다르게 아마추어로서의 입장에서 치료적, 발달적 과제에 따라 이들과 더불어 지내는 것이다.

바), 복지 교육적, 사회 교육적인 역할이다. 복지 정신과 복지의 본질을 배우며, 민주주의를 체득하는 등의 의의이다. 노인, 장애인까지도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공존의 활동

속에서 깨닫게 하는 의의가 있는 것이다.

위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랑의 삶의 표현양식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기독교활동을 목회(Ministry)¹⁾라는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욕구가 만나는 그곳에서 양자의 필요를 채우고 이루어나가는 것이 목회(토마스 C. 오웬, 「목회신학」, 1998)라고 볼 때 그 성취의 방법과 실천적 활동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즉 목회의 실천적인 표현의 부분을 감당한다는 점일 것이다. 이 밖에도 더욱 확장하여 그 의의를 설명할 수 있으나 그 나머지 부분은 사랑의 실천과 목회적 입장의 의의에서 파생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기에 그 의의를 이 선에서 정리한다.

3. 지역사회복지에서의 기독교사회복지 참여를 위한 구조적 역할

기독교가 복지선교사업에 참여하는 구조적 형태를 다음 네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겠다. 첫째로, 기독교가 독립적으로 사회복지법인 설립하고 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사회 내의 복지 활동을 전개하는 법인시설 설치운영 모형이 있다.(충현기독교-충현복지관 설립운영/ 사랑의 기독교-사랑의 복지관 설립운영), 둘째로,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가 설립한 복지시설을 기독교가 수탁 운영하는, 시설 위탁운영 모형이 있다.(남원기독교-남원시장애인 종합복지관 위탁운영), 위의 두 경우는 운영비 모두를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부의 지도 감독 하에 놓여지게 되어 운영의 자율권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수탁운영 시설의 경우는 많은 제약이 따를 수 있고, 법인설치 시설인 경우는 좀 더 자율성이 있을 수 있다. 셋째로, 기독교 내의 인적, 물적, 조직적, 시설적 자원을 활용하여 기독교가 자체적으로 복지선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형이다. 이 경우 기독교가 전적으로 투자(지원)하여(정부의 운영보조금 없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은 되지만, 기독교의 자율권이 확보되어 지역사회의 선교가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수혜자의 범위가 교인이나 일정 지역 내의 주민으로 제한할 가능성을 내포할 수 있고, 비인가 시설형태로 자체운영이 되다보면 사회복지 전문성이 약화되는 한계가 있다.(인천연수제일기독교-선교복지관 운영 / 기타 여러 기독교들에서 운영중인 주중조기치료실, 혹은 방과후교실운영/ 노원순복음기독교-장애인목욕탕운영 등), 넷째로, 기독교가 독립적으

로 복지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기독교의 인적, 물적 자원을 지역사회내의 복지시설과 단체에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사회 선교적 책임을 다하도록 교인을 동기화하고 훈련시키며, 봉사할 기회를 제시하여 주는 모형이다. 가장 쉽고 일반적인 방안이지만 그 시행과 정착이 잘 되지 않는 형태이다. 그 이유를 든다면 한국기독교의 부정적 측면인 개 기독교 중심적 경향으로 인해서 타 시설 및 기관에 참여하거나 지원하는 것에 개 기독교가 매우 소극적이다. 그러나 기독교가 연합의 정신을 발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벌이거나 참여한다면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매우 보편적인 참여 형태인 것이다.(지역 노회가 시설사업을 하는 사례, 지역장애인선교단체와 협력적인 사역을 하는 사례 등)

4.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기독교의 실천방안

1. 운영방안

기독교가 지역사회에서 복지선교를 계획할 때 우선적으로 다음 4가지를 질문을 하면서 효과적인 사역에 임해야 한다. 첫째,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복지선교 분야는 무엇이며, 기독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유형)의 복지선교를 실시할 것인가, 둘째,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사업(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인가, 셋째, 복지선교를 실천하는 분야나 종류의 복지선교사업에 대하여 우리기독교가 실시하기에 적합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가, 넷째, 우리지역사회 내에는 관련기관이나 시설은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가, 등을 중심으로 조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다시 단계별로 예시를 한다면 아래와 같다.

①기획: 기독교의 담당자는 지역사회의 욕구를 사정하고, 그러한 욕구에 대하여 기독교를 교육시키고, 기존의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또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교육시키고, 지속적인 평가의 방법을 제공한다.

②조직 및 인력: 각 개기독교의 자원동원능력과 규모에 따라 각기 다른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즉 소형기독교의 경우에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거나 다른 기관(기독교)과 협력하여 활동할 수 있겠다. 중형기독교와 대형기독교에서는 자체조직을 구성하여(사회봉사 위원회 및 시설 운영위원회 등) 각 교인들로 하여금 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21세기에는 분명히 복지선교가 활발히 전개 될 것이며, 기독교에 대한 지역사회의 복지에 대한 책임과 역할도 강화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지역사회와 동일한 영역의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통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③**자원**: 기독교의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자원유형에는 인적자원, 시설자원, 재정자원이 있으며, 효과적인 선교복지를 위해서 백화점식의 프로그램나열 보다는 가능하면 복지선교 사업 등의 하나의 사업에 집중하도록 개 기독교별로 특성화함이 좋을 것이다.

④**준비 및 훈련**: 기독교의 장애인복지사업을 위한 동기(motivation)유발을 통하여, 능력을 (capacity)개발시켜 기회(opportunity)를 창출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5. 기독교의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기 위한 몇 가지 어려움

1) 성급한 기대감

사람들을 상대하며,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를 구현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시행착오를 가져올 수 있다. 물론 단기적인 면에서의 성과나 즐거움은 상존하는 것은 사실이나 일반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기대하는 바와 같이 상황이 급진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접근과 기대가 필요하다. 한편 장기적인 면에서의 노력과 기대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조직 간의 부조화 조직원간의 불신감, 활동 자체에 대한 회의 등에 대한 수용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2) 기독교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

사람들과 더불어 활동하는 체험 중에는 크리스천으로서의 본인이 찬성할 수 없을 수도 있으며 희망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참여하는 기독교나 크리스천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3) 목사, 기독교지도자, 교인과의 역할의 전환

일반적으로 교인들은 의사결정, 행동의 실시 등에 대하여 목사나 기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순종하여야 한다는 생각 속에 있고, 또 기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부에 의한 결정과 실행은 많은 시행착오를 가져올 수 있고 또 교인들의 활동 의욕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이 반영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은 단기적인 면에서의 성과를 올리는 데에는 유익할지 모르나 기독교의 지역사회복지 실천은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할 때까지 실행하여야 하므로 민주주의적인 리더십은 이 실천에는 더욱 중요하다.

4) 목적과 성공의 척도의 오해

(1) 기독교출석률과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성공 :- 많은 기독교관계자는 기독교활동의 지표를 예배나 성경공부 출석률과 관련을 갖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사회복지실천이 기독교에 출석자가 증가에 하는 것으로 성공을 생각한다. 반대로 기독교 출석이 적으면 이 실천은 실패하였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에 있다. 그러나 물론 기독교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기독교 출석자의 증가는 그 성과를 측정하는데 기준이 될지는 몰라도 이는 기독교의 본래적 존재 목적과 함께 생각을 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그리고 숫자적인 평가는 과연 기독교 교인들의 신앙의 질적인 평가는 하는 데에는 맞지 않은 평가 방법인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2) 목적 달성의 평가 :- 성공과 실패의 평가는 실천 사업의 이해가 명확하게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사업이 교인의 출석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이는 분명히 실패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그 사업이 참여하는 사람들의 인간 성숙화를 위한 사업이었다면 이는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사업의 평가는 인간의 변화를 주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6. 기독교의 지역사회복지의 구체적인 과제

1) 지역의 기독교사회복지 태도의 명확화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위하여 교인들이 특히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부분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즉 그 실천에 대한 지식, 이해와 흥미를 갖고 있어야 하며, 또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 영역에서의 역할 분담과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하며, 아울러 지역사회복지실천이 기독교 사명의 하나라는 것에 이해가 필요하다.

2) 지역의 기독교사회복지 내용의 명확화

지역사회복지의 실천을 위하여 교인들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즉 지금까지 기독교가 시행한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참가한 것들에 대한 이해도와 또 기독교의 지역사회복지실천을 위한 훈련에 참가하려고 하는 의향과 지역사회실천과 신학과의 관계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모임의 참석, 또 기독교의 목표와 목적에 대하여 지역사회복지실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해 등이 필요하다.

IV. 한국 기독교사회복지활동과 일반적 과제

1. 한국의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의 현황

1). 한국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의 흐름

이원규는 한국기독교의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평가하고 있다(이원규, 기독교사회봉사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기독교사회봉사총람, 1994). 즉 선교 초기(즉 1880년대)의 한국기독교는 한국 사회의 개화와 근대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초기의 근대화된 학교들이 주로 개신교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여성해방운동, 문명퇴치운동, 절제운동, 농촌운동 등 광범위한 사회운동들이 기독교에 의하여 주도되었으며, 한편 의료사업이나 복지사업 등을 통한 구호적인 사회봉사활동도 전개하였다. 19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일부 지식계층의 기독교집단이 사회 행동적인 봉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민족운동까지 주도하였으며, 한편 다수의 보수 기독교는 대부흥운동을 통하여 전도 중심의 방향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때부터 개인구원 중심의 신앙 형태가 강화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 구호적, 사회구조적 사회봉사’²⁾는 점차로 약화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1920년대에 와서 3.1 운동에 앞장섰던 한국 기독교는 탄압의 주요 대상이 되었고, 이에 사회운동적 사회봉사는 와해되기 시작하였으며, 한편 한국 기독교는 심한 좌절의식으로 말세신앙과 신비주의를 낳게 되었다. 1945년의 해방에서 지금까지 탄압을 받았던 기독교는 사회적인 평가로 인하여 위상을 높이었으며, 한편 사회 구호적인 사회봉사는 그 힘이 미약하였고, 또 구조적인 사회봉사를 하기에 독재정권을 옹호하는데 힘을 들였기에 그 여력이 없었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의 물결로 인한 공동체성의 상실, 정체성의 상실과 같은 사회적, 심리적 문제로 인하여 사람들은 위로와 희망을 주는 기독교로 오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기독교는 내적으로 신앙의 열정과 부흥운동 등으로 외형적인 기독교성장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양적 성장에 치중하였

2)사회구조적, 구조적 사회봉사는 용어는 기독교의 봉사사업 전통 속에서 이해되어지는 용어이다. 기독교의 봉사사업은 늘 가난하고 고통당하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구호해 주는 사업들이 있어 왔다. 이를 가르쳐 사회구조적인 봉사라고 일컫는다. 한편 구호적인 봉사를 실천하면서 이층면의 문제인 가난과 질병의 사회적인 원인을 발견하게 되고 이러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를 개선하고, 변혁시켜야 한다는 생각과 주장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차원의 봉사 흐름을 일컬어 사회구조적 봉사라고 볼 수 있다(이삼열,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 pp. 17-21.). ‘사회사업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사회구조적인 봉사는 사회복지서비스에 해당되고 사회구조적인 봉사는 사회행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유장춘, 99년 기독교사회봉사 부분 목회계획수립을 위한 워킹, pp. 2-3.)

던 한국 기독교는 구호적인 차원의 사회봉사에 눈을 돌릴 마음의 여유가 없었으며, 신앙의 보조적인 차원의 회기는 구조적인 차원의 사회봉사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게 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일부 진보진영의 한국기독교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즉 정치적 비민주성,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모순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하여 도전을 하기 시작하여 80년대에 들어와서는 더욱 열심히 하였으며 이에 구호적인 사회봉사 보다는 구조적인 사회봉사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80년대 대기독교 보다 작은 기독교 운동을 펼치기 시작하였던 기독교들이 90년대에 들어와서야 그 힘을 구호적인 사회봉사에 투자하기 시작하였고 한편 이 시기의 기독교 성장이 멈추기 시작한 대기독교는 사회봉사관을 짓고 구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손용철, 41,42)고 한다.

2). 한국 기독교의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의 현황

한국 기독교는 실제로 얼마나 어떠한 선교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것인가, "한국기독교 사회봉사사업 조사연구"에 따르면 사회봉사사업에 대한 교단의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기독교 사회봉사사업에 대한 교단의 지원이 소극적이라는 답변이 71.2%였고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교인들의 호응도에 대한 물음에 53.1%가 소극적이라고 대답하고 있어서 개기독교의 사회봉사에 대한 활동에는 교단이나 교인들의 적극적인 지원이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 응답자의 93.0%가 사회봉사에 대한 전담직원이 없다는 것을 보아 아직도 기독교의 사회봉사에 대한 발전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에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한국기독교 사회복지 참여에 관한 연구”나 “사회봉사 총람”, “한국 기독교사회복지의 실태” 등에서의 조사 결과에 의하여 우리나라 기독교의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의 문제점을 몇 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가),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이 아직도 단순 구호적 사업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며, 나), 예방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일시적이고 구호적인 프로그램에 치중하고 있으며, 다), 사회봉사비 지출이 대체로 빈약하고, 이 빈약한 예산도 교인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라), 사회봉사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으며, 마), 또 기독교에서 사회봉사를 위한 헌금이 단순한 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며(수재 구호 헌금,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등), 바), 사회봉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독교의 시설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즉 한국 기독교는 기독교사회복지활동에 대하여 물질, 인적에 대하여서는 매우 소극적이고 인색하다고 할 수 있다.

2). 한국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의 과제

(1). 한국 기독교사회복지활동 부진의 문제점

a. 일반적 문제

한국 기독교는 왜 기독교사회복지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는가, 이에 대한 것을 예의 3가지 조사에 의하여 살펴보면, 기독교 지도자들의 기독교사회복지활동에 대한 부진의 이유를 대다수가 재정적인 문제를 거론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공간상의 문제, 방법, 기술상의 문제를 언급하며, 아울러 교인들과 제직들의 낮은 호응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생각들은 아직도 앞에서 언급한 봐와 같이 목회자들의 의식과 이에 대한 활동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조건들을 생각할 때 한국 기독교의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은 오랜 역사를 소지하고 있으나 고도경제성장의 한파 속에서 중단되고, 변질된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또 기독교사회복지활동에 대한 바른, 정확한 이해에 대한 부족과 이를 추구하려는 바른 이념과 생각의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b. 구조적 문제

한국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인력자원, 재력 자원, 시설자원 등의 자원에 대하여서는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이다. 필요한 경우에, 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동원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되지 않고 있는 한국 기독교의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의 구조적인 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잘 정리(이원규, 242)할 수 있다. 즉

가) 한국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개인복음, 개인 구원을 강조하여 왔다. 개인 구원은 각자 개인이 예수를 믿고, 천당 가는 것이라는 신앙이 지배적이었고, 축복은 개인에게 내리는 선물이라는 신앙이 강한 것이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는 반사회적, 탈 역사적 세계관을 만들어서 사회구원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외면하게 만든 것이다.

나) 한국 기독교에서는 믿음의 차원에서 강조한 것은 수직적인 사랑만을 강조하여 왔지, 수평적 사랑을 덜 강조하여 왔다. 한국 기독교는 너무도 고상한 “하늘 신앙”에만 집착하여 왔지, “이웃 신앙”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따라서 교인들에게는 기도, 기독교 출석, 성경 읽기, 헌금 등을 강조하고, 이를 잘해야 신앙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풍조가 기독교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믿음은 실천이 없는 믿음, 사랑의 실천이 없는 믿음 즉 죽음은 믿음을 소유한 형태가 되어 크리스천들의 적극적인 기독교사

회복지활동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었다.

다) 한국 기독교는 그 동안 선교를 주로 복음화로만 생각을 하여왔지, 인간화로는 생각을 못하였던 경향이 있었다. 선교를 복음화로 보기 때문에 전도의 성과는 매우 컸지만 선교의 인간화 차원이 간과되었기에 인간 생활의 복지, 인권, 봉사의 차원이 소홀히 취급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기독교가 기독교사회복지활동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요인이 된 것이다.

라) 한국 기독교는 개주의 기독교로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한국 기독교는 인적, 물질 자원을 개기독교 즉 자기 기독교의 발전과 성장에만 투자, 투입하는 경향이 있다. 기독교의 힘은 큰 기독교, 대형 기독교에 있다는 생각들이 많아서 기독교의 모든 힘을 이 부분에 투입, 투자하는 경향이 많았다. 따라서 기독교사회복지활동과 같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본인들의 기독교와는 직접 상관이 없는 일들은 기독교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또 어느 정도의 재력의 여유가 생기면 그때에 하여도 늦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게 되어 결국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은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한국 기독교의 지역사회복지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

가)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에서와 같이 개기독교 주의, 개인구원주의, 수직적 신앙주의와 같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요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계속 방치할 경우, 최근 언론에까지 보도되고, 언론에까지 난입하는 비전전 기독교와 이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신자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때문에 바른 신앙관 바른 기독교관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또 하나는 기독교사회복지활동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독교사회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것들의 이해가 부족하면 기독교사회복지에 대한 방향이 흔들리고, 왜곡될 수 있는 요인들이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확인 작업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신학적인 면에서의 점검은 물론 기독교사회복지 자체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요소들도 점검이 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용어에서의 정립도 필요하다. 즉 사회봉사, 자원봉사, 민간사회복지 등과 같은 개념들의 이해와 정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단지, 성질이 비슷하더라도 쓰는 분야에 따라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 고유성에 따라 조금 다르게 이해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인정하여야 하는지 등을 포함한 개념과 성격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 또 기독교가 기독교사회복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과 내용들에 대한 점검이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기독교 재정이 있어야, 기독교가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을 위한 시설을 기독교 자체가 소유하여야 기독교사회복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접근 방안을 공유할 필요가 일 것이다.

라) 좀더 미시적인 것으로는 기독교사회복지를 위한 기독교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을 위한 구조와 내용, 이에 필요한 예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앞의 조사 결과에서도 아직도 사회봉사를 하고 있는 기독교에서는 이를 전담하는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의 개입에 의한 기독교사회복지 접근 전략들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확보가 우선되고 이에 따라 교인들의 대한 교육 및 기독교의 형편과 수준에 맞는 기독교사회복지활동 프로그램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 지역사회에서의 기독교도 하나의 자원으로 생각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지역사회에서 존재하는 자원으로 인식하여 기독교 시설 자원들에 대한 사회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일주일에 몇 번 쓰는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시설로 인식하고 이를 개방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단체들과의 협력으로 지역사회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바) 지역사회를 위한 기독교들 간의 이해와 협동이 필요하다. 물론 지금의 개기독교 중심 사회에서는 어려울지라도 이해되는 기독교와 이해되는 기독교지도자들과, 이해되는 기독교 교인들과 협력하는 태도나 모습을 갖고 기독교사회복지활동에 참가하여야 할 것이다.

사) 마지막으로 앞의 자료에서도 알듯이, 현재 사회복지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사회복지 분야에 참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이 문제를 야기했을 때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신앙인들이 그러하였을 때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인 자신의 노력은 물론 교단 차원에서, 지역 크리스찬적 차원에서 이를 위한 모임과 회의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V. 나오는 말

기독교는 사회복지의 모태로써, 역사 속에서 그 역할을 나름대로 해왔다. 차제에 기독교의 기독교사회복지활동에 대한 활동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정황 가운데 어떤 의식과 활동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평가가 어떠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은 무엇이었는가를 점검, 확인하는 작업을 본고에서 다루어 보았다. 그것을 통해 보다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이끌어 내 보았다. 이러한 노력은 최근 기독교사회복지에 대해 평가받고 있는 한국 개신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먼저 자원봉사를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회봉사라는 용어로 묶어 표현하면서 이를 기독교와 연관지어 그 본질을 밝혀보았다. 기독교의 기독교사회복지 본질은 일반적인 성격과 유사한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독특한 바탕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불런터리즘이라는 바탕과 함께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독특성이 그 본질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기독교사회복지의 본질적인 내용은 성서 속에서 지지를 받는 것으로 구약과 신약 속에서 그 명확한 활동과 사상이 드러나고 있다.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은 그 형태와 의의에 있어 일반적인 사회봉사와는 공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구별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특징을 기독교라는 맥락이 주는 것이다.

한국 기독교의 활동과 그 과제를 살펴보는 부분에서 한국기독교의 대 사회봉사의 역할이 초기에 긍정적인 평가와 아울러 선도적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기와 후기로 이전되면서 한국 사회의 여러 정황과 맞물려 그 실천적인 평가가 후퇴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그 시대적인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 기독교의 활동에 대한 역사적인 점검과 아울러 중요한 몇 가지 조사들을 통해 한국기독교의 기독교사회복지에 대한 밀도 있는 추적을 하여보았는데, 그 결과 여러 가지 개선점과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 기독교의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의 문제점을 추론한 결과, 일반적 면과 구조적인 면으로 대별되는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위의 고찰을 바탕으로 한국 기독교의 기독교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 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받는 개기독교주의, 개인구원주의, 수직적 신앙주의의 점검을 지적했고, 기독교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했다. 또 기독교사회복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전략들과 내용들에 대한 점검 또한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리고 미시적인 면에서의 접근을 위한 점검을 보다 밀도 있게 수행해야 할 것과 기독교의 사회화 필요성을 말했으며, 기독교들 간의 연합과 협동의 필요도 제안되었다. 마지막으로 바른 신앙에 입각한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이 되도록 격려할 수 있는 크리스천들의 점검모임과 회의의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기독교사회복지는 기독교가 크든 작든, 교인이 많든, 적든, 현금이 많든, 적든지 간에

상관없이, 기독교이기에, 크리스천이기에, 의당히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날까지 관심을 가지고, 이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실천하면서 존재하려는 사명의식이 기독교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회피할 수 없는 본질이기 때문이다.

Ⅰ 참고문헌 Ⅰ

1. 기독교사회봉사총람(1994), 한국장로회출판사.
2. 한국기독교사회복지총람(2007),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3. 교회사회사업편람(2003), 한국교회사회사업학회.
4. 기독교사회복지(1996, 1998), 서울신학대학 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
5. 유장춘, 기독교의 역사와 사회봉사, 기독교와 복지관의 연계로 보는 기독교사회사업, 한국 기독교의 사회목사직 설치를 위한 기초 연구, 99년 기독교사회봉사 부분 목회계립을 위한 워킹,
<http://welfare.or.kr/goodnews/library/prof-jcyoo/02.htr>.
6. 사회봉사 어떻게 할 것인가(1998), 신촌 포럼 세번째, 신촌성결기독교.
7. 신학해제(1985), 김광식 역 한국신학연구소.
8. 한국기독교의 헌금과 사회봉사(1996), 기독교 사회복지세미나, 중앙성결기독교.
9. 이원규(1994), 지역사회현실과 기독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사회부.
10. 양동춘(1998), 기독교대한성결기독교 사회선교, 기독교사회복지 현황 및 그 전망, 미간행물.
11. 한미준/한국갤럽(1999), 한국개신교의 기독교활동 및 신앙의식조사보고서, 두란노.
12. 현외성(1996), 21세기를 향한 감리기독교의 사회봉사와 사회복지, 기독교대한 감리회 사회평신도국.
13. 대전지역 기독교의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1997), 연구보고서,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지역사회선교협의회.

14. 노상학(1979, 겨울호), 기독교와 사회복지, 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5. 전광현(1999), 기독교와 지역사회복지실천, 경기밀알선기독교 제1회 복지정책서미나.
16. 전광현 역(1999), 사회복지 신학, 예영커뮤니케이션.
17. 전광현 외(2010), 사회봉사의 이해, 양서원.
18. 전광현, 마끼사또 편(2010), 한일지역복지론, 나눔의 집
19. 김기원(1998), 기독교사회복지론, 대학출판사.
20. 사회복지문제연구소편(1990), 자원봉사론, 학사원.
21. 토마스 C. 오덴(1998), 목회신학, 한국장로교출판사.
22. ボランティア研究会(1980), 日本のボランティア, 全国社会福祉協議會.
23. 本田尙士(1993), ボランティア活動のいざない, 建棉社.
24. 大阪ボランティア協會(1987), ボランティア, ミネルヴァ書房.
25. 田代不二男(1983), 社会福祉とキリスト教, 相川書房.
26. 日本基督教社会福祉學會 編(1979), キリスト教社会福祉概論, 日本基督教団出版局.
27. 日本キリスト教社会福祉學會(1998), 社会福祉實踐とキリスト教, ミネルヴァ書房.
28. 門協聖子(1997), ディアコニア、キリスト新聞社.
29. 基督教社会福祉學研究(1975, 1977), 日本基督教社会福祉學會.

지역사회복지관과 교회와의 협력체계를 통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실천 사례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이 상 희 부장

I. 지역사회복지관과 교회

지역사회복지관이 우리나라에 도입 된지 100여년이 넘었다.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며 제도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 이후 전국에 420개 (2010.9 기준)의 지역사회복지관이 운영 중에 있다. 지역사회복지관은 복지환경이 열악한 우리나라에서 다기능의 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회복지 전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회복지관의 역할과 사회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더욱 다양해지고 세분화 되어지는 이용자들의 욕구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한편, 19세기 말에 들어온 한국 기독교는 학교, 병원, 사회사업 기관 설립을 통하여 한국사회를 개혁하며 민족정신과 자립의 힘을 키우는 등 한국사회의 봉사분야에 대한 교회의 공헌을 하였으며 어느 정도 규모의 교회들이 교육관과 복지센터 등을 설립하고 자체적으로 선교와 사회복지에 접목한 프로그램 실시가 증가하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숭고한 정신과 인적, 물적, 지적 자원들이 이 사회를 위해 기여하며 교회의 지역사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광림교회, 충현교회 등 대형교회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통해 전문 사회복지사업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만나는 대부분 교회는 개 교회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다보니 사회복지 효율성, 효과성을 측정하기 어렵고 가시적인 효과, 즉 선교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주관적인 이해로 편협 적인 시각으로 사회복지사업이 전개되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사회복지 전문 인력이 확보된 지역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지역사회를 조직하고 변화시키는 일은 일부 사회복지관을 제외하고는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활동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지역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여 해결하고 예방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교회들과 함께 사회복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역할을 다하고 다양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의 협력체계를 통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되어져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교회는 지역사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고 공적 기여도를 높임으로서 교회가 지역사회 내 공신력을 회복하고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은 인적, 시설적, 물질적, 정신적 자원을 가진 사회적 기관이라는 점에서 교회와 지역사회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교회의 자원을 사회복지자원화 함과 더불어 사회복지 전문영역이 확대되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개선에 크게 공헌 할 수 있다.

Ⅱ.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과 교회와의 사회복지 협력 프로그램 실천사례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의 지역사회 활동 현황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은 1988년 7월에 시민회관으로 설치되어 운영하며 독서실, 공판장의 기능을 하다가 1992년에 사회복지관으로 변경 운영되면서 재가복지 기능을 중심으로 지역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1998년 이후에는 가족 해체 예방, 지역사회 계몽 및 지역사회의 연계 및 통합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것은 지역 내 교회와의 협력 속에서 가능한 일이었고 특히 250평 규모의 작은 사회복지관 시설이 감당하지 못하는 실천사업을 인근의 동성교회의 시설자원(교회개방)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은 기독교 성격의 법인의 영향으로 구리 지역 내의 교회들과 원만한 관계를 이루며 사회복지 서비스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1993년부터 연1회 자선음악회를 시작으로 17회에 이르는 난방비 전달식까지 지역의 교회에서 진행과 협력을 통하여 홍보, 계몽과 더불어 수익금을 재가 대상자들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회의 관심을 유도하였다.

하지만 교회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회가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데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2008년 3월 사회복지관 신축 이전을 하였고 이는 전문 프로그램 확대 및 활성화의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교회와의 소극적인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확대하는 사업들을 통하여 지역 내 교회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동안 교회와의 협력 사업은 교회시설에 대한 자원 활용과 일시적인 후원참여가 대부분이었기에 앞으로 장기적이고 보다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은 20만이 거주하는 구리시의 다양한 계층별 욕구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 되고 있어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 그러나 그 한계가 분명함에 지난 20여 년 간 교회와의 협력 사업을 살펴 그 대안을 교회와의 협력 안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구리사회복지관 사업의 교회별 협력 현황

교회명	협력현황	일정	비고
구리시 기독교 지도자 연합회	자선음악회	1994년 - 2006년(14회 협력)	
	난방비지원 협력	1992년 - (18회 협력)	
교문교회	차량지원	- 현재	45인승 대형 교회차량 지원
	자선음악회 장소제공	1998년 - 2000년	5,6,7회
	자원봉사활동 참여	1993년 - 현재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사업
구리중앙교회	결연사업 협력	1994년 - 현재	
	자선음악회 장소제공	1994년 - 1996년	
구리 순복음 교회	차량지원	- 현재	45인승 대형 교회차량 지원
	차량지원	2002년 - 현재	45인승 대형 교회차량 지원
	생신잔치 협력 및 봉사	2002년 - 2006년	권사회에서 년 4회 어르신 생신잔치 지원 및 봉사
돌다리 교회	긴급지원 사업후원	1995년 - 2006년	
	결연사업 협력	2006년 - 현재	
동성교회	자원봉사활동	2008년 - 현재	주1회 결식아동 지원 활동
	시설개방	1997년 - 2000년	교육 프로그램실로의 개방
두레교회	사업후원	1993년 - 현재	
	방과 후 교실 지원 및 자원봉사활동	2001년 - 2002년	월 1회 서비스 실시
	밑반찬 지원사업	2001년 - 2002년	월 1회 노손 9세대
	결연사업 협력 및 봉사	2003년 - 현재	

교회명	협력현황	일정	비고
면일교회	행사협력(난방비전달식)	2004년 - 현재	공연봉사 및 결연사업 협력
목양교회	독거어르신 밀반찬 지원	1999년 - 2000년	44세대 (2001년부터 자체 대상자를 발굴하여 직접 관리/진행. 2004년 종결)
	집수리 사업협력	1998년 - 현재	전문봉사 및 재원 협력
	자원봉사활동	2008년 - 현재	주1회 결식아동 도시락사업
성광교회	차량지원	- 현재	45인승 대형차량 지원
	자선음악회 장소제공	1997년	
	사회복지사업 후원	1993년 - 현재	결연사업 등
	행사협력(동요콘서트)	2002년	제1회 동요콘서트 : 권사회 출연
성천교회	맞춤형 밀반찬사업 협력	2006년 - 현재	노인성질환자 밀반찬지원
수평교회	결연사업 협력	2008년 - 현재	
솔만한 교회	무료복지사업 기금마련 "일일밥집"	2000년 - 2008년 (9회 지원협력)	1회-4회 : 결식도시락지원 5회-9회 : 재가어르신 무료 복지프로그램 지원
시민교회	복지관 운영위원회 참여	2002년 - 현재	
	결연사업 협력	2001년 - 현재	
	자원봉사활동	2004년 - 2009년	주1회 결식아동 지원 활동
	전문교육 지원	2006년 - 현재	"성공학" 직원교육 등
신망애교회	결연사업 협력	2003년 - 현재	독거어르신 10세대 지원
이천동교회	결연사업 협력	2006년 - 현재	
예빛교회	결연사업 협력	2005년 - 현재	
예중교회	결연사업 협력	2000년 - 2001년	
은누리비전교회	다문화가정 사업 협력	2008년 - 현재	
	결연사업 협력	2005년 - 현재	
주님의교회	결연사업 협력	2008년 - 현재	
찬광교회	사업 협력	2002년 - 2003년	
한누리교회	차량지원	2002년 - 2003년	30인승 차량 지원
	자원봉사활동	2002년 - 2003년	어르신 도시락 지원활동
행복한교회	결연사업 협력	2006년 - 현재	

2. 구리지역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 현황

구리지역에는 2010년 기준 230개의 교회가 있다.(구리시기독교연합회 통계)

복지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사회복지사업 실천에 관심이 있는 교회는 지속적으로 사회복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전체 교회에 비하여 매우 적은 수의 교회만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기적이고 장기적인 협력보다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인 사업 협력이 대부분이다. 한편, 교회 자체적으로 지역에 있는 장애인 생활 시설(개인시설)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기도 하지만 일회성의 단순구제 성격에 가까운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밀알교회(담임목사 이석형)에서는 자체적으로 무료 급식 진행 사례가 있으며 구리순복음교회(담임목사 조승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예배를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시도 하였고, 목양교회(담임목사 황규현)에서는 초기 복지관과의 협력 사업으로 시작한 독거어르신 밑반찬 지원 사업을 자체 운영하기까지 하였으나, 자체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으로 4년 후 사업이 종결되었다. 상기 사례들은 풍족한 자원은 확보되었으나 사회복지 전문인력에 의한 계획과 사업관리의 부재로 중단하게 되었고 다수의 교회가 자체 성도들에 대한 금품 후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사회로의 확대에는 다소 소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지역사회복지사업 실천에 관심이 있는 교회는 사업에 따라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목양교회(담임목사 황규현)에서는 지역의 결식아동 도시락 배분 봉사활동과 독거어르신 집수리 봉사활동을 10년 이상 실천하고 있으며, 두레교회(담임목사 김진홍)에서는 교회 내 자체 지역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인력 배치를 통하여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과의 연계사업과 후원금품 지원 등 작간접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구리시의 경우 개 교회마다 사회복지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교회 내에 국한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 중단된 사례도 많이 있다. 이렇듯 개 기독교 중심적 경향으로 인하여 교회가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이 매우 적은 상황이다.

그러나, 구리시기독교지도자 연합회를 통하여 개 교회가 아닌 연합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공동 사업의 경우 지역사회 내 매우 큰 영향력 발휘가 가능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급변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지역사회문제를 지역의 개인, 단체와 해결하고자 할 때에 교회라는 자원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Ⅲ. 지역사회복지관과 교회 연계의 문제와 대안

1. 지역사회복지관과 교회 연계의 문제

지역사회복지관 측면	교회 측면
지역사회복지관으로서 편중된 종교적 성향에 대한 사업에 미치는 영향	성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실에서의 만족감 저하로 지속 활동의 어려움.
사회복지 실천 사업의 결과 평가 시 사회복지적인 효율성 및 효과성과 선교결과와 연계하려는 입장 차이에 대한 조율의 문제	지역복지 실천현장에서 발생하는 비기독교적인 현실에 대한 수용 부족
선교목적으로 협력하는 교회와의 관계	목회자의 민주적인 리더쉽 실천의 문제

2. 교회와 복지관 연계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1) 교회와 사회복지관이 상호협조를 하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민간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부의 지원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의 한계를 극복하여 진행

2)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다른 공공 기관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차별이나 까다로운 절차 등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에 교회는 어느 특정한 기관에서 할 수 없는 매우 광범위한 실천 영역을 가지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3) 교회는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사회기관이므로 장기적인 계획 하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교회는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지역주민들까지도 현대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대상에 따라 종교적인 성격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역의 욕구에 따라 제공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4) 교회내외의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체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지역 내 교회끼리 연합하여 정보와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5) 교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부분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하며, 기존의

구제 또는 자선사업의 형태를 탈피하는 것은 물론 프로그램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녹번종합사회복지관

녹번종합사회복지관 Nokbeon community welfare center

희 망 을 나 누 는 중 은 이 웃

녹 번 중 합 사 회 복 지 관

n o k b e o n c o m m u n i t y w e l f a r e c e n t e r



CI



녹번종합사회복지관은
기독교적 사랑을 바탕으로 한 휴먼서비스기관입니다.



이웃과 함께 희망을 나누며



지역사회와 함께 사랑을 실천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이웃과 함께
사랑을 실천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듭니다.

Logo type



희망을 나누는 좋은 이웃

녹번종합사회복지관
Nokbeon Community welfare center



생명보호 (삶의 질 향상)
나눔과 섬김
연대와 참여를 통한 혁신



고백과 실천(Confession & Praxis)의 조화
탁월함(Excellence)의 추구
프로정신(Professional Spirit)의 견지



클라이언트 중심의 가치(Client Oriented value)
문제해결 지향 프로그램 (Focus on the Problem-Solving Program)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실천(Community based Activity)





비전 VISION

Vision 1. 지역사회를 책임지는 예방적 복지

니눔과 섬김으로 이웃사랑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최일선 수행기관입니다.

Vision2. 개인과 가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맞춤형 복지

개인과 가족에 대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치유와 회복을 추구하는 전인치유센터입니다.

Vision3. 더불어 행복해지는 지역사회를 꿈꾸는 보편적 복지

연대와 참여를 통하여 더불어 행복해지는 지역공동체를 실현하는 비전센터입니다.



사명선언문

Mission of Independence

우리는 녹번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 생명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유용한 자원들을 나누고
이웃사랑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성화와
복음적인 지역문화를 이룩하도록 헌신한다.



아름다운 실천 윤리경영

녹번종합사회복지관은 2007년 11월 5일 윤리경영선포식을 갖고 윤리경영이라는 아름다운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인식에서부터 시작된 윤리경영이 모두의 실천이 되기까지 앞으로도 더욱 윤리경영을 선도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윤리경영 전문 선포


녹번종합사회복지관 윤리경영 전문

우리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주민들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진실이 용례하여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개인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또한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지원한다.

우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자발성을 이끌어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커리어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클라이언트, 동료, 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및 전체사회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의 행위와 활동을 만민, 평가하여 인도하는 윤리기준을 선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TFT구성



네트워크활동



우수직원표창



아름다운 실천 윤리경영

녹번종합사회복지관은 2007년 11월 5일 윤리경영선포식을 갖고 윤리경영이라는 아름다운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인식에서부터 시작된 윤리경영이 모두의 실천이 되기까지 앞으로도 더욱 윤리경영을 선도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명함(케리커처 활용)

고객의 소리함



명찰(케리커처 활용)



연혁

History

2010

- 2010.02.01 이주여성 일자리 창출사업 실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 2009.09.01 다문화 본국 활용 멘토링 사업 실시(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 2009.09.15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사례기관 협약체결
- 2008.11.14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개소
- 2008.04.16 은평주거복지센터 개소(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2008.12.31까지 운영)
- 2008.03.13 은평외국인근로자센터 개소(서울시 지원)
- 2008.01.02 어르신 성문화 프로젝트 사업 실시(서울공동모금회 지원)
- 2007.10.18 제 1 회 다문화지역축제 개최(서울연회 후원)
- 2007.09.07 사회복지의 날 기념 지자체 우수시설 표창
- 2007.09.07 사회복지중사자 역량강화와 투명성 확립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선정 및 율리경영도입(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지원)
- 2007.07.26 평생학습협력기관 지정(서울특별시교육청)
- 2007.03.08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뉴패러다임센터 컨설팅 MOU체결



연혁

History

1996

- 2006.10.18 결혼이주민을 위한 다문화지원사업 실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 2006.09.05 지역아동센터 구름다리교실 개설
- 2005.02.28 결식아동지원사업 실시(한국암웨이 지원)
- 2004.10.16 제 1 회 담쟁이 걷기대회 개최
- 2004.05.25 제 1 회 가족문화축제 개최(은평구 시민단체연합행사)
- 2004.05.20 노인우울증 예방프로그램 실시(KT&G복지재단 지원)
- 2004.01.29 장애인인식개선사업 실시(서울시 지원)
- 2003.07.11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수탁운영 약정체결
- 2002.07.01 알코올 남용자 재활프로그램 운영
- 2001.07.20 어르신 무료급식소 '경로식당'개소
- 2000.03.02 청소년 '인터넷 카페'개소
- 1998.11.16 실직 노숙인 지원센터 '희망의 집'개소
- 1997.09.30 은평늬색가게 개장
- 1996.02.14 녹번종합사회복지관 개관(법인 : 서울 YMCA)



조직도

Organization chart



직원현황

우리는 이들을 '희망지기' 라고 부릅니다.

21

Social Worker															
구분	관장	총괄부장	선임과장	총무과장	팀장	대리	사회복지사	미화	안전관리	운전기사	상담사	강사	사회복지무원	희망근로	계
현원	1	1	1	1	5	2	11	1	1	1	5	9	3	1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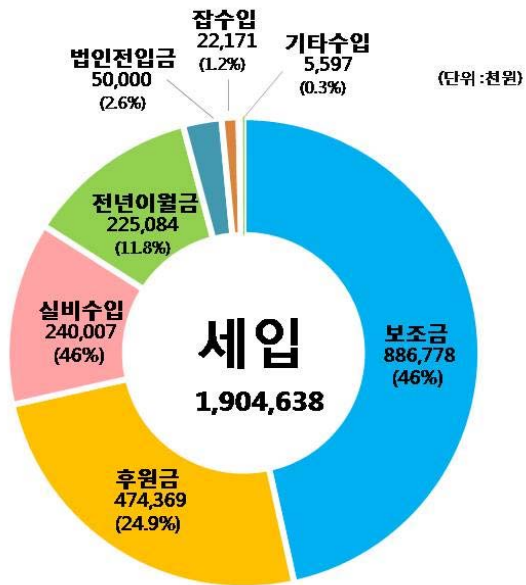
시설 현황

사무실 프로그램실
기능실 기타

3층	프로그램실	상담팀 (전인지유상담센터)		음악치료실	인터넷카페 (컴퓨터교실)
				집단치료실	
2층	피아노교실	프로그램실	프로그램실	총무행정과	프로그램실
		관장실	지역사회조직팀 가족복지팀	연예	
1층	녹번복지관 어린이 집				경로식당
지층	프로그램실	지역사회보호팀 (배가복지봉사센터)		다문화지원팀 (온평외국연금조사센터)	
			안전관리실	조리교실	기관실

예산 현황

- 보조금
- 후원금
- 실비수입
- 전년이월금
- 법인전입금
- 잡수입
- 기타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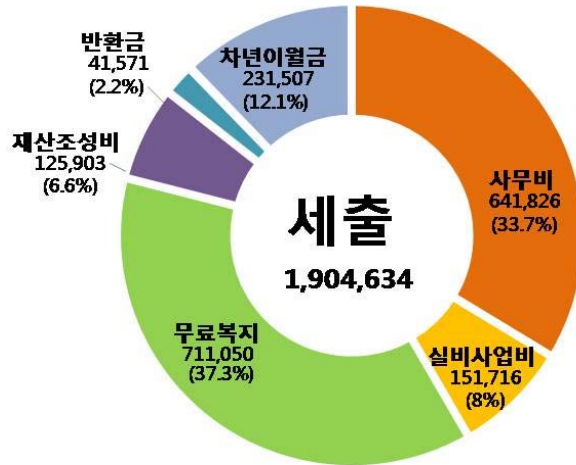


<출처 : 2009년 녹번종합사회복지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예산 현황

(단위 :천원)

- 사무비
- 실비사업비
- 무료복지사업비
- 재산조성비
- 반환금
- 차년이월금



<출처 : 2009년 녹번종합사회복지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총 계		한국인	외국인
	세대	인구(명)	인구(명)	인구(명)
2008	182,762	463,364	458,401	4963
녹번동	15,583	36,907	36,380	527
불경1동	14,807	36,353	35,841	512
불경2동	10,798	27,489	27,135	354
갈현1동	10,621	27,892	27,681	211
갈현2동	11,268	33,072	32,908	134
구산동	13,316	31,952	31,570	382
대조동	13,749	33,993	33,300	693
응암1동	9,178	21,533	21,367	166
응암2동	10,278	27,770	27,309	461
응암3동	9,326	24,642	24,557	85
역촌동	8,645	22,327	22,142	185
신사1동	8,482	21,189	20,909	280
신사2동	3,730	10,841	10,783	58
중산동	13,458	32,583	32,374	209
수색동	11,606	28,204	28,038	166
진권동	17,917	46,617	46,107	510

<자료출처 : 2009 은평구 통계연보>

가족복지과

가족복지팀
● 관부모가족지원센터



가족관계증진사업

- 여성관부모가정 역량강화사업
해피바이러스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 자녀성장프로그램
 - 한부모성장프로그램
 - 가족성장프로그램
 - 지역사회인식개선사업
 - 한부모가정아해증진사업
 - 자립지원
 - 소호창업지원

가족기능보완사업

- 학교사회복지
- 청소년 테마&문화 동아리
- 아동보호사업
 - 저학년 다문화 통합 '어울림누리'
 - 고학년 다문화 통합 '다드림'

가족문제해결치료사업

- 아동 청소년 셀프리더십 강성을 위한 멘토링 사업
- 여성가장자립지원사업
- 성장프로젝트 '반올림'
- 위기제난 사례관리



가족복지과

상담팀
● 전인적유상담센터



아동 사업

- 아동발달지원사업
 - 언어치료
 - 인지치료
 - 놀이치료
 - 음악치료
 - 미술치료
- 저소득 가정 무료 치료 지원
- 사회성그룹치료 '우리누리'
- 장애아동 치료비 및 교육비 지원사업
- 심리치료지원사업

성인 사업

- 중년기와 리더십 코칭 "오후"
- 상담사업 "힐링"
 - 심리상담
 - 집단상담
 - 해석상담

연구 사업

- case conference





지역복지과

- 지역 사회 보호팀
- 지역 사회 조 직팀
- 다 문화 제 원팀



사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상담 ● 사례관리 회의 ● 신규사례발굴
급식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식당사업 ● 밑반찬 서비스(대조제일교회 연계) ● 김장지원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지원서비스 ● 이동목욕서비스 ● 주거환경개선서비스
보건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과진료서비스 ● 의료강좌
경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원금 지원 ● 후원품 지원
특별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버이날 행사 ● 명절맞이 행사



지역복지과

- 지역 사회 보호팀
- 지역 사회 조 직팀
- 다 문화 제 원팀



정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신나들이
어르신 성문화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르신 성 순회교육 ● 부부관계 프로그램 ● 캠페인 활동 ● 성 상담원 양성 과정 (교육, 집담 프로그램, 캠프, 상담)
후원 개발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원 개발 ● 후원모금 ● 후원 식 물품 수령 및 배분 ● 후원자 관리 ● 아름다운 이웃, 서울 디딤돌
은평구 재가복지 연합회 공동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양 죽 국 사업 ● 방역서비스 ● 지역축제 ● 김장축제 ● 은평구재가복지연합회 공동나들이 ● 난방비 지원



지역복지과

- 지역 사회 보호팀
- 지역 사회 조직팀
- 다문화 지원팀



복지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분과위원활동 ● 은평구 지역사회 네트워크 ● 은평구 재가복지서비스 연합회 ●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 위기재난대응네트워크
자원봉사 관리 및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 모집 및 연계 ● 자원봉사 교육 ● 자원봉사 간담회 ● 자원봉사 관리(간담회 포함)
홍보 출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n-line : 홈페이지 관리, 싸이월드 관리 ● off-line : 소식지, 각종 홍보물, 기념품, 가판달력 연하장, 각종 출판 등 ● 보도의뢰 및 기사 scrap



지역복지과

- 지역 사회 보호팀
- 지역 사회 조직팀
- 다문화 지원팀



희망플러스 & 꿈나래 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관리 ● 저축관리 ● 금융교육 ● 자조모임 운영 지원 ● 부모(양육 교육)
교육연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연구 기획 : 욕구 및 만족도 조사 ● 사회복지현장실습지도
주민복지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의 빵 ● 테마기획사업 :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 개관기념행사
기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사업단 ● 윤리경영



지역복지과

- 지역 사회 보호팀
- 지역 사회 조 직팀
- 다 문화 지원 팀



은평 외국인 근로자센터
(서울시계관)

- 교육지원사업
 - 한국어 교육
 - 정보화 교육
 - 요리교육
 - 기초경로교육 : 노동법, 법률 등
 - 미취학자녀 교육 P/G
- 복지 및 문화지원사업
 - 상담 & 사례관리
 - 의료지원
 - 이동상담
 - 문화체험
 - 송년모임
 - 공동체 모임(자조모임)
- 동역가 양성사업
 - 동역가양성
 - 동역서비스 자원
- 홍보 및 인식개선
- 여가지원사업
- 지역네트워크



지역복지과

- 지역 사회 보호팀
- 지역 사회 조 직팀
- 다 문화 지원 팀



다문화이주여성 일자리창출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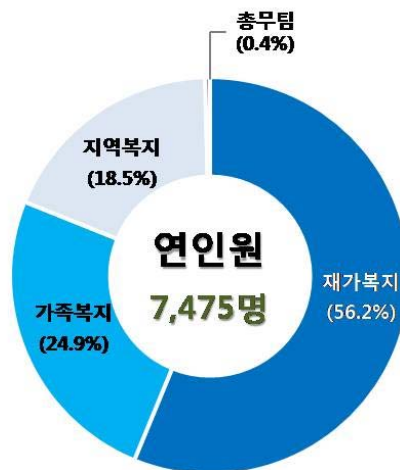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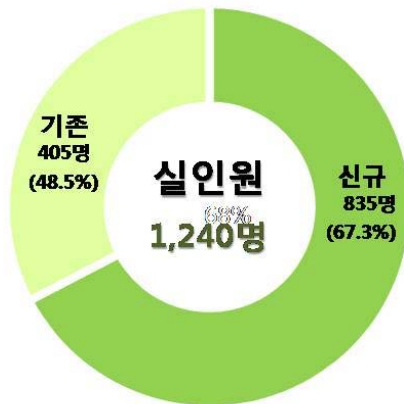
- 동번역 상담 활동가 양성교육
- 정보화 및 기능교육
- 활동가 자조모임 및 보수교육
- “무지개소리 사업단” 활동
- 이주여성 사회참여 증진 인식 개선사업
- 사업단 브랜드 발족 및 사회적 기업 전환 구축





아동 교육문화	어르신 교육문화	성인 교육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화구연 · 아동컴퓨터 · 컴퓨터 자격증반 · 영어나라 · 수학공부방 · 주산암산 · 그림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말 교실 · 컴퓨터 교실 · 알파벳 영어 · 웃음교실 · 노래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리교실 - 자격증반 - 특강반 · 컴퓨터교실(개인레슨) · 피아노교실(개인레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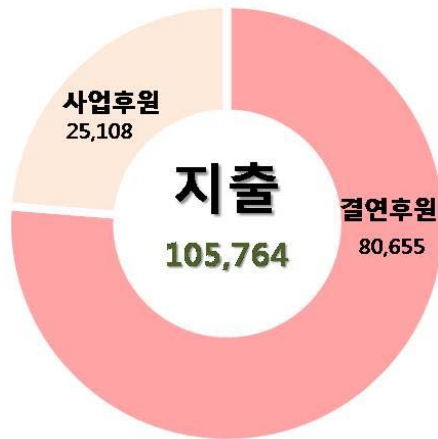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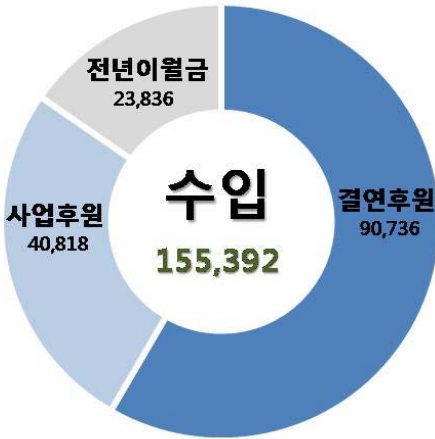
● 자원봉사자 현황 < 2009.01.01.-12.31 >





● 후원 현황 < 2009.01.01.-12.31 >

(단위 :천원)



● 자원협력 체계





최근 2년간 외부지원사업 현황

2009

(단위: 원)

연번	지원기관	지원명	사업명	지원금액 (자부담제외)
1	삼성전자복지재단	작은나눔 큰사랑 사회복지프로그램개발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학습부진 아동을 위한 기초학습능력 향상 통합발달지원 프로그램 『성장프로젝트 반올림』	10,510,000
2	서부교육청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주간아동보호프로그램 『구름다리교실』	5,000,000
3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야간아동보호사업	『꿈꾸는 반딧불이』	8,430,000
4	평생교육진흥원	소외계층 및 주말과정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저소득 한부모-자녀 관계개선을 위한 미술심리활동 부모교 육프로그램 『피카소를 꿈꾸는 신사임당』	5,000,000
5	아모레퍼시픽	여성가장지원사업	『위풍당당 프로젝트』	8,500,000
6	은행구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	여성한부모과정과 자녀의 문화여가증진프로그램 『컬러풀 해피바이러스』	6,420,000
7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노인성문화사업 2차년도지원사업	『성(性)스런 혁명! 황혼의 성(性)-지역기반 성(性)장(丈)프 로젝트』	39,170,000
8	한화석유화학	다문화아동 방과후교실	『무지개 교실』	10,000,000
9	LG복지재단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따뜻한 집 만들기』	15,000,000



연번	지원기관	지원명	사업명	지원금액 (자부담제외)
10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코스트코 코리아 지정기탁)	심리치료지원사업	정서장애아동의 자존감 획득 및 사회성 증진프로그램 『가족치유 마음치유』	4,998,400
11	건일제약	저소득층 미술치료지원사업	장애아동의 미술심리 그룹치료를 통한 자존감 획득 및 사회 성 증진프로그램 『사랑개비 캠페인』	9,360,000
12	중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다문화가족 3차년도 지원사업	이주외국인의 한국사회 적응능력향상과 지역자원안정망 구축사업 『좋은 이웃 은평, 색(色)다른 나의 등지 은평』	49,850,000
13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다문화아동보육지 원사업	『무지개 공간』	6,000,000
14	BC카드	은누리 어울림캠프	『BC카드와 함께하는 은누리 어울림 캠프』	119,945,600
15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과 행복나눔재 단 지정기탁사업	자국 멘토를 활용한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 적응능력 향 상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아낌없이 주는 나무』	35,000,000
16	서울시	여성발전기금사업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을 위한 역량강화 및 교육, 문화지원사 업 『무지개 꽃이 피었습니다』	16,000,000
17	서울시 고용정책과	외국인근로자센터	『은평외국인근로자센터』	130,000,000
18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윤리경영 3차년도지원사업	『윤리경영』	1,000,000



2009년 외부 지원금 총액 = 480,184,000원



● 2008

(단위:원)

연 번	정부 및 민간 지원기관	지원명	사업명	지원금액 (자부담 제외)
1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KB 지정기탁)	다문화 가정 자녀 보 육 지원사업	다문화 가정 자녀(미취학)의 생애주기별 발달과업 을 위한 맞춤형 한글교육 및 보육지원 사업 『무지개 공간』	14,000,000
2	(주)한국암웨이	결식아동보호사업	결식·빈곤아동의 문화접속 자아성장프로젝트 『랄랄라~문화원정대』	8,000,000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윤리경영 2차년도	『윤리경영』	1,414,000
4	서울시 고용정책과	외국인근로자센터	『은평외국인근로자센터』	70,000,000
5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	야간요보호아동통합 지원사업	저소득가정의 야간방임아동 통합지원 및 야간보호 교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야간보호 프로그램 『꿈꾸는 반딧불이』	29,922,000
6	서부교육청	교육복지투자우선지 원사업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청소년 사례관리	5,050,000
7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거복지지원사업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 내 주거복지향상 프로젝트 『현 집 줄게 새집 다오』	94,179,600
8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노인성문화프로젝트 1차년도	『성(性)스런 혁명! 황혼의 성(性)- 지역기반 성(性) 장(丈) project』	40,400,000



연 번	정부 및 민간 지원기관	지원명	사업명	지원금액 (자부담 제외)
9	은평구	여성발전기금	결혼이민자 및 가족을 위한 문화교육지원사업 『무지개 꽃이 피었습니다』	4,409,050
10	중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다문화사업 2차년도 사 업	이주외국인의 한국사회 적응능력향상과 지역자원 안전망구축사업 『좋은 이웃 은평, 색(色)다른 나의 동지 은평』	20,705,000
11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코스트코코리아지정기탁)	놀이치료실 지원사업	저소득가정 정서행동장애아동의 자존감 및 사회성 증진을 위한 놀이치료 프로그램 『가족치유 마음치유』	11,000,000
12	평생교육진흥원	소외계층 및 주말과정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	한부모가족지원 『우리아이와 함께 배우는 콩닥콩닥 즐거운 요리교 실』	4,635,000
13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초복지인프라지원사업	경로식당 식탁 및 조리기기 구입 『아름다운 밥상을 위하여』	8,450,000
14	LG복지재단	주거환경개선사업	『따뜻한 집 만들기』	16,790,000



2008년 외부 지원금 총액 328,954,560원

녹색종합사회복지관 Nokbeon community welfare center



희망을 나누는 좋은 이웃
녹색종합사회복지관
Nokbeon Community welfare center

☐ 후원으로 ☐ 후원인 ☐ 후원기업 ☐ 사이버협

| 복지관소개 | 사업안내 | 후원/자원봉사 | 윤리경영 | 커뮤니티 | 자료실

WHAT'S NEWS

[2009-02-16] <재가복지> 성문화...

성문화 프로그램의 전달인력채용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

- [2009-02-13] 통권 10호 소식지 발행
- [2009-02-11] 후원감사! 2008년 1월 후원자 여러분...
- [2009-02-10] [봉사모집] 청소년 학습연도형 대학생...

SCHEDULE

2009년 / 2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QUICK

찾아오시는길

후원신청

봉사자신청

교육신청

www.nokbeon.or.kr



HOPE STORY

희망 스토리 - 우리 이웃들의 희망이야기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쫓아다니는 이광용 어르신. 주저하지 사업.....

후원/사가 될래요

이웃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 줄 여러분의 마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ONE 민/월/년 | 후원안내 | 신청하기

지원/봉사자 될래요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분을 환영합니다.

봉사안내 | 신청하기

양정교회

물결어울

선물사랑

보통사람들

사랑의기

공동모금회

은빛구름

생태보전시민모임

은평시민넷

은평타임즈

성명교회